



전수빈 중학교 3학년

2025년 05월 21일 수요일

날씨 ☁️

고무장갑을 비닐로, 프링글스를 플라스틱에...

재활용 분리배출 때마다 시민들은 혼란에 빠진다. 쓰레기의 성분을 공부해야 하는 난관에 부딪히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재활용 품 분리배출표시 제도가 도입된 지 30년이 지났지만 재활용 비율은 절반에도 못 미치는 것으로 드러났다. 현장에서 만난 시민들은 분리배출을 하긴 하지만 기준을 잘 모르고 있었고 이를 관리하는 경비원들도 비수속했다. 전문가들은 자원 순환을 위한 실질적 재활용이 이뤄지기 위해선 통일된 분리배출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2025. 05. 21 (사회) 3면

이데일리

절반도 못 건지는 '헛수거'



느낀 점

이 기사를 읽고 나는 많은 부분에서 충격을 받았다. 우리가 분리수거를 한다고 배린 것들이 정작 재활용이 되는 건 절반도 안 된다는 것이 믿을 수 없었다. 애초에 안된 건 누가 봐도 플라스틱인 걸 베닐에 넣거나, 누가 봐도 플라스틱이 아닌 걸 플라스틱으로 버린다는 것이다. 쓰레기를 버리는데 시간이 없다고 대중 버리는 것은 정말 잘못된 행동이다. 지금 시간이 없는 건 지구다. 한시라도 지구를 위해 행동을 주저해 모자란데, 인간이 바쁘다는 이유로 이 시간을 아끼워하니 답답한 것 같기도 하다. 또 기사 내용에 따르면 지자체마다 분리배출 지침이 다르다. 과자봉이 플라스틱에 버려졌다. 다고 했는데 이 점도 고쳐져야 할 대안인 것 같다. 사람들에게 확실한 정보와 규칙을 전해주어 혼란을 막으면 사람들도 쉽게 그리고 개개인이 쓰레기 분리수거를 할 수 있지 않을까?

과일 그물망은 비닐류? 쓰레기? 이데일리가 최근 찾은 서울 강남구 압구정동의 2000구 이상 아파트 단지 분리수거장. '비닐류'라고 적힌 봉투 안에는 플라스틱의 일종인 발포 폴리에틸렌(PE) 재질의 과일 그물망이 버려져 있었다. 환경부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과일망은 일반쓰레기로 버려야 한다. 바로 옆에 있는 '플라스틱류' 봉투에는 유선 청소기 본체와 전선이 함께 담겨 있었다. 인포 보기에 플라스틱 봉만 버려진 듯한 이 봉투 안에는 자세히 살펴보니 고무와 철제 스프링, 플라스틱 등 여러 소재가 섞인 화장품 용기와 과자 봉도 눈에 띄었다.

'제대로' 분리배출 장면을 쉽게 찾을 수 있었다. 비닐류 수거 봉투에는 빨간색 고무장갑이 보였다. 강남구 조례에 따르면 고무장갑은 비닐류가 아닌 PP 마대에 버려야 한다. 겉면에 '종이류'라고 표시돼 있지만 캔류에 버려진 야구 용품봉도 보였다. 이 아파트 주민 50대 여성은 "하나라도 뭘 어디로 넣어야 하는지 살펴볼 여유가 없다"며 1분여 만에 1주일 치 쓰레기를 버리고 급하게 자리를 떠났다. 이처럼 제대로 분류되지 않은 채 버려진 쓰레기는 대부분 매립 혹은 소각된다. 환경부가 발간한 전국 폐기물 발생



나의 실천

플라스틱 병과 용기는 개뚜껑 하구, 베닐 스티커를 제거하고, 투명·유색 플라스틱을 분리하여 분리수거함에 넣는 모습이다. 올바른 분리배출을 통해 재활용률을 높이고 환경오염을 줄일 수 있다. 직접 분리수거를 해보면서 우리가 평소엔 무심코 버리던 플라스틱이 환경에 큰 영향을 준다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달았다. 비록 이 행동들은 작은 실천이지만, 많은 사람들이 함께하면 큰 변화를 만들 수 있다는 희망을 느꼈다. 플라스틱 뿐만 아니라, 캔, 종이 등 모든 쓰레기는 우리가 만들어 낸 문제인 만큼, 우리가 직접 해결하고 고쳐야 한다는 생각이 들었다. 올바른 분리배출을 지구를 위해 우리가 할 수 있는 '헛' 걸음이자 책임 있는 시민의 자세가 아닐까?

다. 부산에 사는 김정인(27) 씨는 "아이들 팬이라 앨범을 사고 버릴 때 CD가 플라스틱인 줄 알았는데 재활용이 어렵다는 걸 뒤늦게 알았다"며 "앨범 안에 내장된 포스터의 코팅 사진도 종이류가 아니었다"고 말했다. 지자체마다 다른 분리배출 지침도 문제다. 종이팩의 경우 서울 송파구에서는 별도 수거함에 버리도록 하지만 수거함이 없는 대다수 지자체는 종이류나 일반 쓰레기에 버리도록 하고 있다.

마무리

어떤 편 플라스틱이 캔이 버려져있고, 비닐에 플라스틱이 버려져있기도 합니다. 껌, 제빵 플라스틱 용기에 남은 음식물은 최대한 씻어서 버려주세요! 여러분이 그렇듯만 해주셔도 우리 경비원 분들의 수고가 덜어질 거예요!

< 분리수거 수칙 >

- 첫째, 쓰레기의 성분을 확인하고 버린다.
- 둘째, 이물질은 최대한 제거하고 버린다.
- 셋째, 지구를 생각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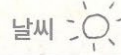
귀찮아도 제대로 분리하면 지구가 웃어요! 우리 같이 해봐요!!





전수빈 중학교 3학년

2025 년 06 월 3 일 화요일



물 부족으로 매일 어린이 1000명이 목숨 잃는다고?

전 세계 22억 명 이상 '식수난' ... OECD "한국도 물 기근 국가 전략 가능성" **소년한국일보** 2025.03.21 01면 (청남)

Q. 마실 수 있는 물은 얼마나 있나?

A. '물은 생명이다' 라는 말에서 보듯, 인간은 3주를 굶어도 생존할 수 있지만 3일만 물을 마시지 못하면 생명이 위협해진다. 물은 지구 전체 면적(표면)의 3/4을 차지한다. 그러나 지구의 모든 물을 그곳에 담는다면 지구 질량의 0.025%에 그친다. 그중 바닷물이 97%. 민물이 3%다. 하지만 바닷물은 대부분이 소금물이라 마실 수 없다. 지구상 담수의 70%는 빙하 등 얼음과 눈으로 존재한다. 전 세계적으로 약 20억 명이 빙하 또는 눈이 녹은 물 산에서 흘러나오는 물을 식수 농업용수 에너지 생산에 활용한다.

Q. 물 얼마나 부족하나?

A. 유엔에 따르면 전 세계 22억 명이 이상 **이식수난을 겪고 있다.** 약 36억명(전체의 44%)은 위생을 유지하는 데 필요한 물을 충분히 공급받지 못하고 있다. 그 때문에 **매일 어린이 1000명이 목숨을 잃고 있다.** 2030년께는 담수 수요가 공급을 40% 넘 어설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따라 2050년에는 세계 식량 생산의 절반 이상이 위협에 처할 수 있다는 경고도 나오고 있다.

우리나라도 UN이 지정한 '물 긴장

Q. 생활 속 물 절약은 어떻게?

A. 우리가장에서 쓰는 물은 1/4이 욕조(수도꼭지·샤워헤드)와 세면대(수도꼭지)를 통해 나온다. 4인 가족 기준 화장실 양변기 물로 하루에 255리터를 쓴다. 하루 생활용수의 27%가량. 따라서 양치할 때에는 수도꼭지를 잠그거나, 목욕하는 시간을 줄이면 물을 아끼게 된다. 무농약 과일이나 채소는 흐르는 물에 씻지 않고 받아서 쓰는 것도 방법이다. **수도꼭지에서 1초에 한 방울씩 새어나가는 물을 1년간 모으면 샤워를 180번 이상할 수 있다.** 탄소배출을 줄여 지구의 온도를 식히는 방법도 있다. 짧은 거리는 걷거나 자전거를 타면 된다.



느낀점

물을 쉽게 사용할 수 있는 세상에 살다보니, 물의 소중함을 자주 잊고 지내는 것 같다. 하지만 우리가 아무 생각 없이 흘려보낸 물이, 어떤 이들에게는 생명을 유지할 수 있는 유일한 자원이거나 사실을 떠올리니 많은 생각이 들었다. 전 세계 수 많은 사람들이 깨끗한 물 한 컵을 구하기 위해 몇 시간씩 걷고 돌아오지만, 그마저도 얻지 못하는 현실이 너무 안타까웠다. 나의 작은 물 절약이 누군가에게는 큰 희망이 된다는 생각에 책임감을 느끼게 되는 것 같다. 앞으로는 물을 아껴쓰는 습관을 통해 지구와 모두의 내일을 지켜야겠다는 생각과 다짐이 생겼다.

나의 실천

나는 이번 나의 실천에서 세면대의 수도꼭지를 틀어 놓지 않고, 옆에 있던 양치 컵에 물을 받아 이용했다. 보통 많은 사람들이 양치할 때 물을 계속 틀어 놓는 경우가 많은데, 그 습관을 이전 바꿔야 한다. 평소에 나도 그 잠깐이면 괜찮겠지라는 마음으로 수도꼭지를 틀어놓곤 했는데, 이렇게 권 하나만으로도 물을 절약할 수 있다는 걸 다시금 깨달았다. 우리는 일상에서 너무 쉽게, 그리고 아무런 고민 없이 물을 낭비하는 것 같다. 지구의 물은 매우 제한적이며, 특히 식수는 더욱이 귀하다. 양치 컵을 사용하게 그다지 독창적이지도 않고 평범한 작은 변화이지만, 이런 실천이 모이면 큰 효과를 낼 수 있을 거라고 나는 생각한다.



마무리

이걸로도 물을 아낄 수 있다!

“내가 버린 물 한방울, 지구의 땅 한방울, 뜨거운 눈물 한방울.”
- 전수빈 -





우수상

전수빈 중학교 3학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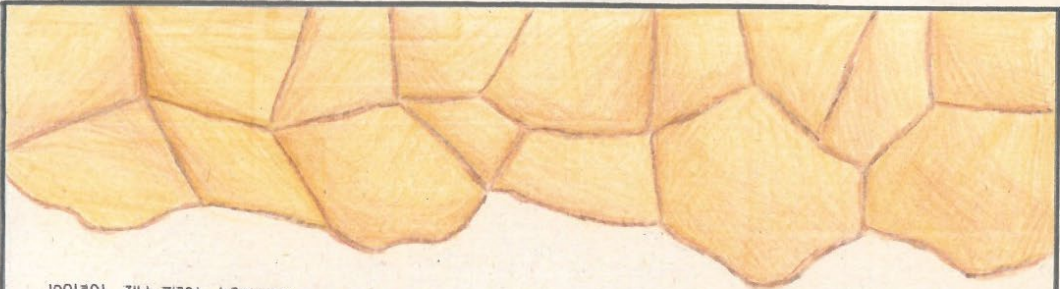
2025 년 06 월 3 일 화요일

날씨: ☀

나의 숨겨진 활동을 엿볼 수 있는...

< 첫번째 활동 : 100년 뒤의 지구에게 편지쓰기 >

포트폴리오



100년이 지난 지구의 누군가에게

2125년 많이 변화한 우리의 지구에 살고 있을 누군가에게, 이 편지가 닿길 바래요.

나는 지금 2025년, 깨끗한 물을 들기만 하면 쓸 수 있는 시대에 살고 있어요.

우리 대한민국에서는, 마시는 물이든, 씻는 물이든, 어떤 물이든 그냥 수도꼭지 하나로 해결이 돼요.

중요적인 건 이런 대한민국이 물 부족 국가라는 것이죠. 하지만 쓰면 쓸수록, 낭비하면 할수록 이런 당연한게 아니라는 걸 깨닫고 있습니다. 당신이 사는 시대에 물을 맘껏 쓸 수 있긴 한가요?

마시는 물조차 사치가 되는 세상이라면... 그건 아마 지금 우리의 책임일지도 몰라요.

양치할 때, 샤워할 때, 설거지할 때조차 물의 소중함을 잊었거든요.

그 결과 이미 지구의 셀 수 없이 많은 지역이 물 부족으로 고통받고 있어요. 그럼에도 우리 인간은 무관심하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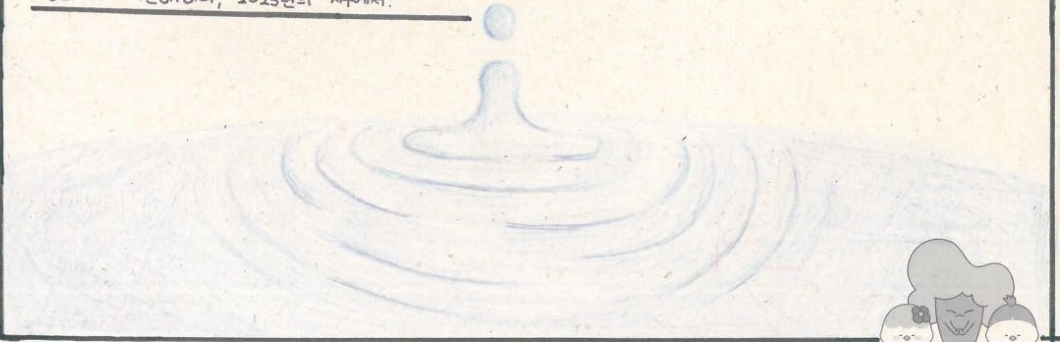
그래서 지금부터 물을 들기 전에도 한번더 생각하고, 가능한 한 적게 쓰려고 해요.

지금 우리가 실천하지 않으면 당신의 세대가 고통을 겪을 테니까요.

이 편지를 읽는 당신이 부디 물 걱정 없이 살아가길 바래요.

그게 가능하도록 우리가 노력하겠단 약속해요.

당신에게 미안해서 하며, 2025년의 지구에서.





전수빈 중학교 3학년

2025 년 06 월 18 일 수요일

날씨 ☀

“개인컵 쓰면 400원 절약” ...

파이낸셜 뉴스 2025년 06월 03일 22면 정국

가맹점서

개인컵으로 100원 할인

서울시, 일상속 친환경 정책 확대

■개인 컵 쓰면 400~2500원 할인
 서울시는 오는 4일부터 개인 컵 이용 활성화를 위해 ‘서울페이 개인 컵 포인트제’ 운영 사업을 시작한다고 2일 밝혔다. 서울페이에 개인 컵 포인트제는 시민이 참여 매장 카페에서 개인 컵을 이용해 음료를 구매할 경우 매장 자체 할인(100원 이상)에 더해 시가 서울페이 포인트 300원을 추가로 적립해주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느낀점

커피 전문점에서는 일회용 컵이 하루

2300만 개, 프랜차이즈 카페·패스트푸드 업체에서는 하루 2600만

개 정도 사용된다고 한다. 즉 연간 260억개가 넘는 일회용 컵이

사용되는 것이다. 대한민국이 집계만으로도 이렇게나 많은 플라스틱 컵들이 사용되면 전세계

적으로는 거의 셀 수도 없을 것이다. 그래서 기사와 같이 개인컵을 사용하게 하는 정책을 만들면

더욱 많은 사람들이 플라스틱 일회용 컵 사용을 줄일 것이다. 이 일이 쉽지는 않지만 정책들이

먼저 나쁘다면 많은 사람들이 용기를 낼 것이다. 하루에 우리나라의 반 이상의 사람들만 개인

컵을 사용해도 효과는 엄청난 것이다. 쉽고 간단하게 환경도 보호하고 일석이조가 아닐까?



서울페이 사용이 어려운 시민에게도 일반 결제 시 300원 상당의 할인을 제공한다. 해당 금액은 시가 매장에 사후 정산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또 시는 참여 매장이 자체적으로 월 1회 ‘텀블러데이’를 운영할 수 있도록 지원해 시민과 매장의 참여를 확대할 계획이다. ‘텀블러데이’에는 매장별로 최대 50잔까지 개인 컵 구매 고객에게 2500원 할인을 제공한다. 할인 금액은 시가 해당 매장에 정산할 예정이다.

나의실천

나의 세번째 실천은

텀블러를 썼다. 지난 주말 나는 스타벅스의 한 캠페인을

볼게 되었다. 스타벅스의 일종인 환경보호 마케팅이

었다. 스타벅스의 텀블러를 사면 음료를 무료로 주는 것

이었다. 이를하여 ‘환경보호를 위한 에코 텀블러 쿠폰’



이다. 나는 이것만큼 이번 실천에 맞는 것은 없다는 생각이 들었다. 음료도 공짜로 받고,

환경보호에도 동참하니 두 마리 토끼 사냥 성공이었다. 궁금해서 더 찾아보니 스타벅스는

다양한 환경 캠페인을 시행하고 있었다. 환경을 위해 노력하는 기업의 음료를 사먹으며

나도 플라스틱 컵 줄이기에 한 몫을 보탤라는 생각이 뿌듯했다. 앞으로는 더 나아가 배달

용기 사용도 줄여보아야겠다.

마무리

오늘날 현대인들은 시간에 쫓기는 바쁜 세상에 살고 있다. 그래서 음료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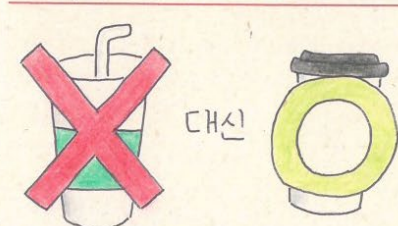
음식을 포장하는 일이 잦다.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일회용 컵과 플라스틱, 종이 컵의 사용이 늘게되었다. 늘면 늘수록 지구에

쓰이는 플라스틱 양도 늘고있다.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많은 대기업들이 여러가지 대책들을 만들고 있다.

음료의 포장재를 없애거나, 기계에서는 텀블러 사용을 적극하고, 불필요한 일회용품 사용을 줄인다. 또한 사람들의

관심이 증가하며 친환경성을 마케팅의 한 요소로 사용하는 회사도 많다. 오늘날은 평범한 사람들도 환경을

위해 힘쓴다. 아직 시도하지 않았다면 해보고 싶지 않은가?



텀블러 사용을 늘려
 불필요한 자원 낭비를 줄이고 지구에게
 러브/사리만 주자.





전수빈 중학교 3학년

2025년 06월 25일 수요일

날씨 ☁️

우리의 저탄식단 지구의 지속노화

전 세계 온실가스의 약 30%, 한국은 약 16%(한국농촌경제연구원)가 '먹는 일'에서 발생합니다. 식품 생산부터 유

국내 메탄 발생량 22%, 쌀 재배 과정에서 우리가 거의 매일 먹는 쌀도 온실가스 주요 배출원 중 하나인 것 알고 계셨나요? 저는 몰랐어요.

그런데 쌀밥, 김밥, 비빔밥, 볶음밥 등 한국인의 주식인 쌀 역시 재배 과정에서 메탄 발생량이 꽤 많다고 합니다. 메탄(CH₄)은 지구온난화 효과가 이산화탄소(CO₂)의 15~34배 강한 온실가스인데요. 버는 보통 눈에 물을 채워서 키우는데, 산소가 부족할 때 메탄을 뿜어내는 세균이 논에서 잘 번성한다고 해요. 한국은 전체 농경지 중 절반(53%)이 논이기 때문에, 국내 메탄 배출량의 약 22%가 벼 재배 과정에서 발생합니다.

우리가 몰랐던 기후행동 야채 먹자... 한국일보 2025년 05월 08일 (도재리랑 소도 살아야지)



잔반 남기면 식재료 낭비에 메탄도 유발
사실 저탄소-친환경 농산물은 일반 식재료보다 비싼 경우가 많죠. 하지만 돈이 많아야만 기후행동을 할 수 있는 것은 절대 아니에요. 음식 낭비하지 않기, 식물성 식단 하기, 제철 식재료 쓰기, 지역 먹거리 애용하기(유통과정에서도 많은 탄소가 배출되니까요), 텃밭 가꾸기 등 실천 방법은 많습니다. 식물성 원료만 쓰는 플루윈 '식물성 지구식단' 등처럼 식품업계에서도 비건 간편식을 출시하는 추세고요. 이날 지구식단 행사에서도 플루윈 제품을 활용한 비건 만두, 참치느낌나는 대체육을 올린 유부초밥 등이 제공됐는데 맛있더군요.

느낀 점

채식을 늘리고자 하는 다움과 같은 기사를 읽고, 식물성에 환경의 영향이 생각보다 크다는 사실에 놀랐다. 육류 소비가 많을수록 탄소 배출이 심하다는 내용을 보면 죄책감이 들었다. 나 하나의 식습관이 큰 변화를 만들 수 있을까 의문이 들었지만, 많은 사람들이 함께 실천한다면 큰 힘이 될 거란 확신도 들었다. 기사에서 소개된 채식의 권장량 이럼도 인상 깊었다. 단순히 환경 보호뿐 아니라 내 몸을 위한 선택이 될 수 있다는 점에서 실천할 이유가 충분하다고 느꼈다. 오히려 육식을 하면서는 환경오염이 발생한다는 걸 깨달았다. 저일부터 식습관을 바꾸는 것은 어렵지만 이 기사를 계기로 더 나은 식습관과 생활 방식을 고민하게 되었다.



이제 채식을 늘려야지!!

나의 실천

이번 주말에 내가 가족들과 율남쌘을 만들어 먹었다. 율남쌘은 내가 생각하는 최고로 좋은 야채 먹기 방법이었다. 육식을 줄이고 채식을 늘리는 식습관을 시도해보니, 처음에는 낯설었지만 점점 몸에 기어워지는 걸 느꼈다. 소화도 더 잘 되고 속도 덜 더부룩해져서 건강에도 도움이 되는 것 같았다. 무엇보다 축산업으로 인한 탄소 배출과 환경 오염을 줄이는데 조금이라도 기여하고 있다는 생각에 부듯했다. 육류 대신 다양한 신선한 채소와 곡물로 식단을 꾸리다 보니 식단의 색감도 더 풍부해지고 보기만 해도



기분이 좋아졌다. 고기를 꼭 먹지 않아도 충분히 맛있고 든든한 식사가 가능하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일주일에 매일 한 끼는 무조건 채식을 해보면 어떨까. 작은 습관이지만 지속하면 큰 변화를 만들 수 있다는 믿음이 생겼다. 앞으로는 환경을 생각해야 하겠다.

마무리

우리 가족은 매주 위 사진처럼 채소를 많이 먹으려고 노력한다. 특히 율남쌘을 먹거나 마끼 감밥 같은 걸을 먹으면 다음날 아침에 몸도 덜 무겁지도 않고 가벼운 느낌이 든다. 또한 채소를 많이 먹으면 몸도 건강해진다. 그래서 우리 가족은 고기를 좋아하지만 채소를 먹으며 마음을 다잡아 보기도 한다.

< 준비도 간편하고 맛있는 율남쌘 >





전수빈 중학교 3학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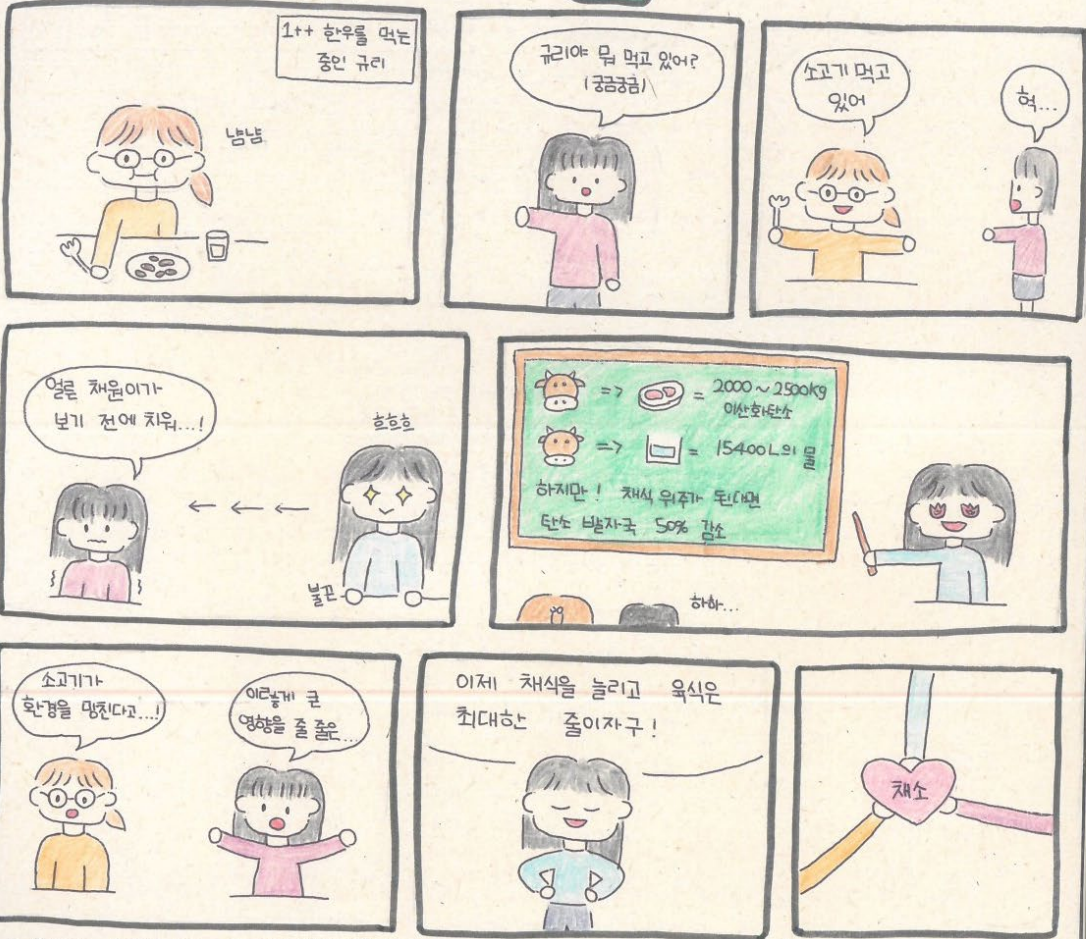
2025 년 06 월 30 일 월요일 날씨 ☁

나의 숨겨진 활동을 엿볼 수 있는 ...

<두번째 호스트: 육류 섭취를 줄이자는 만화 그리기>

포트폴리오

등장인물 : (내 친구) 문규리, 류지민, 박채우



소 한마리는 하루에 200~500L의 메탄가스를 배출한다. 길 년이면 110kg을 배출하는 셈이다.
 메탄은 이산화탄소보다 온실효과가 84배 강하다.
 소고기는 물뿐만 아니라 토지, 사료도 소비하며 가족의 온실가스 배출량의 65%가 소에 해당한다.
 소고기 대신 닭고기나 식물성 단백질로 대체하는 방법을 사용한다.





전수빈 중학교 3학년

2025년 05월 07일 월요일

날씨 ☀

플라스틱 오염 종식 '세계 환경의 날'과 함께 환경일보 2025년 05월 12일 03면 종합

환경보호 다짐, 쓰레기 달리기 실천, 수중 정화 활동 전개

모두의 행동(Shared Challenge, Collective Action)이라는 올해 세계 환경의 날의 취지를 널리 알리고 플라스틱 오염에 대한 인식을 높이기 위해 마련됐다.

(SNS)에 플라스틱 줄이기 등 환경보호에 대한 다짐과 실천하고자 하는 내용을 검색 기호(해시태그)를 포함해 올리면 된다.

이 밖에 우리나라를 포함한 세계 곳곳에서는 수중 정화 활동도 펼쳐진

다. 헬씨 씨즈(Healthy Seas) 등 전 세계 비영리단체(NGO)에서는 우리나라를 비롯해 네덜란드, 미국, 탄자니아, 포르투갈, 필리핀 등 총 6개국에서 수중 정화 활동을 진행하고 관련 영상을 공개할 계획이다.

환경부는 수중 정화 활동에 참여 의사가 있는 단체 또는 동호회를 대상으로 관련 영상을 자신의 사회관계망에 올리거나 구급품을 통해 공유할 수 있도록 안내할 예정이다. 실천 활동을 통해 공유된 영상 중

나와 내 친구들은 쓰레기가 버려진 곳과 불과 1m 안팎의 거리에 쓰레기들이 있는 걸 보고 더욱 기가 막혔다. 가는 길에 쓰레기 하나 제대로 버리는 게 이렇게 어려운 일인가. 결국 우리가 버렸다. 하지만 그 행동이 애비가 된다는 건 아니다. 아직까지도 가우뚱하다. 나는 애초에 학교 안에서 음식물 섭취를 하지 않으려 한다. 왜냐하면, 나 자신도 불안하기 때문이다. 나 또한 쓰레기를 버려는데 가끔은 양심도 같이 버리게 되기 때문이다. 그래서 애초에 책임지지 못하겠다면 시작하진 않겠다. 정말이지 다들 매우 이기적이고 나쁘다. 이제는 자신이 책임지고 버리지 못할 쓰레기는 대안 만들면 안된다.

느낀 점

요즘 길거리에 나가면 해도 깨끗해야 할 거리와 공원이 담배꽂초, 플라스틱 병들, 음료수 캔들로 지저분해져 있다. 이렇게 무심코 버려진 쓰레기들이 결국은 하천으로, 바다로 흘러가 자연을 해친다는 사실이 떠올랐다. 우리 주변 환경은 우리 손으로 직접 보호해야 하고 관심을 가져야 한다. 이 점에서 책임감을 느끼게 된 것도 많다. 사람들이 바다에 쓰레기를 버리는 건, '나 하나는 뭐.', '누가 주워주겠지.' 라는 잘못된 생각에서 비롯된다. 그러다 보니 점점 누군가는 치우겠다고 모두가 생각하게 되고, 애써 오면하러다 보니 지금의 모습이 된 게 아닌지 싶다. 더 깨끗한 환경은 모두의 작은 의지에서 시작된 행동이 축적된 것이다. '누군가'가 내가 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쓰레기 하나를 주우며 지구를 머물리고, 성찰해야 한다. 작은 쓰레기라도 주워 보려는 용기와, 내 쓰레기는 끝까지 책임지는 습관이 필요하다고 느꼈다. 아무래도 습관을 들여 놓으면 어느새 물에 뛰어들 수 있을 것이기 때문이다. 자연을 위해, 그리고 나 자신을 위해 더 개어있는 시간이 되어야겠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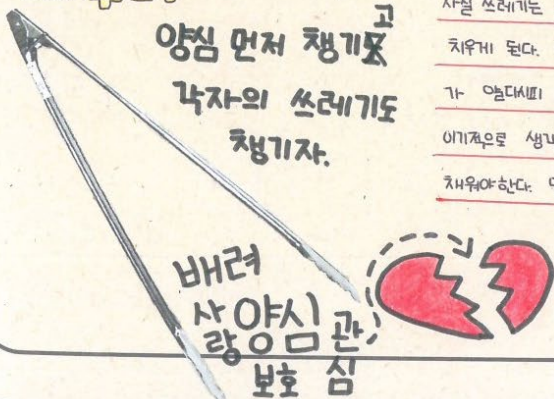
나의 실천

오늘 학교에서 곳곳에 버려진 다양한 쓰레기들을 보며 마음이 무거웠다. 음료수가 그대로 흘러 전등바닥 음료수 캔, 예저기 냇물, 대채 어디서 나온지 모르는 담배꽂초들이 버려져 있었다.



WorldEnvironmentDay #세계환경의날 #플라스틱오염종식 #BeatPlasticPollution 매일 30분 동네 한바퀴 돌아 플로깅하기 다짐합니다

마무리



사실 쓰레기는 여기 말하듯 버릴 때 굉장한 책임감과 여러 가지 감정이 들어가 치우게 된다. 용기, 양심도 필요하며 자연을 사랑하는 마음도 필요하다. 하지만 모두가 알다시피 마음 속에 양심을 품고 사는 이가 돌물어지고 있다. 자신을 중시하고 이기적으로 생각하게 때문이다. 이제 비어있는 그들의 마음에 이러한 감정을 채워야 한다. 먼저 마음을 채우면 쓰레기들도 잘터네.





전수빈 중학교 3학년

2025 년 07 월 10 일 목요일

날씨 ☀

축제의 계절 여름, '제로웨이스트' 소리 질러!

영국에서 한국까지... 문화 콘텐츠로 확산되는 친환경 축제, 선택 아닌 의무

환경일보 2025년 7월 7일 10면 (종합)



국제 환경 NGO에 따르면, 대규모 음악 축제에서 발생하는 탄소배출량은 단 3일간 약 500톤에 달하며, 미국의 대표적인 축제 코첼라(Coachella)에서는 하루 평균 12만5000여 명의 이동과 함께 약 1600톤의 폐기물이 발생한 것으로 보고됐다. 이는 단순한 쓰레기 문제가 아닌, 기후위기의 촉매제라 할 수 있다.

제로웨이스트 페스티벌이란?
지난날 극심한 가뭄과 속에 일민 위태 페스티벌 등을 계기로 축제가 남기는 환경오염에 대한 관심이 커지며, 이에 대한 대안으로 떠오른 것이 바로 '제로웨이스트 페스티벌(Zero Waste Festival)'이다. 말 그대로 '쓰레기 제로'를 지향하는 축제로, 탄소배출과 폐기물 발생을 최소화하기 위해 다양한 노력이 이뤄진다.

호주의 메레디스 뮤직 페스티벌(Meredith Music Festival)은 1991년부터 지금까지 개최되고 있는 호주의 가장 오래된 축제이다. 메레디스는 한 달 강우량이 약 8mm 남짓의 지역이다. 이에 따라 축제에서는 폐비와 화장실과 빗물 샤워 부스를 운영하며, 화장실에서는 약 80%의 물을 절약하고, 샤워 용수로는 약 7만L의 물을 절약하는 효과를 거뒀다.

영국의 글래스톤베리 페스티벌(Glastonbury Festival)은 2019년부터 일회용 플라스틱 병 판매 및 사용을 전면 금지했고, 2023년에는 페스티벌 역사상 처음으로 100% 재생에너지 기반의 축제를 운영하며 전 세계에 지속 가능한 축제의 가능성을 보여줬다. 축제의 모든 시설은 태양광과 폐식용유를 이용한 바이오디젤, 하이브리드 배터리로 운영하는 등 더 이상 화석연

을 권장했다. 이외에도 발리 아일라시, 콜드플레이 등 세계적인 아티스트들이 재탄소 무어를 아이기며 새로운 관객 문화를 만들어가고 있다.

한국의 유적 페스티벌, 어디까지 왔나

국내에서도 제로웨이스트에 대한 관심이 점차 축제 문화 속으로 스며들고 있다. 서울시는 2022년 '제로웨이스트 서울'을 선언하고, 이후 69개 축제에서 총 87만 개의 다회용기를 사용에 일회용 플라스틱 378톤, 온실가스 약 1039톤을 감축했다. 2023년부터는 100명 이상이 참여하는 행사에서 일회용품 사용을 전면 금지했고, 2024년까지 폐플라스틱 10% 감축을 목표로 하고 있다.

지속 가능한 축제를 위해 축제는 하나의 즐거움이지만, 그 뒤에 남는 쓰레기는 오래도록 지구를 괴롭힌다. 더 이상 이 현실을 축제의 그림자로만 받아들일 수는 없다. 이제는 무대를 설계하는 방식부터 음식을 담는 그릇 하나까지 바꿔야 할 때다. 개인에게도 선택의 책임은 있다. 텀블러 하나, 다회용기 하나만 안 반이 대단한 일은 아니지만, 그 사소한 행동이 쌓여야만 축제의 지속 가능성도 현실이 된다. 관객은 단순 소비자가 아니라, 함께 축제를 만들어 가는 공동 책임자라는 인식의 전환이 필요하다.

느낀점

탄소배출을 줄이기 위한 축제들을 보며, 이러한 방법이 굉장히 효과적일 것 같았다. 화려함보다 지속가능성을 추구하는 모습이 인상 깊었다. 관객들도 이러한 행보에 적극 참여하고 동참하는 모습도 감동적이었다. 이런 축제들이 많아지면 사람들의 인식이 자연스럽게 바뀔 것 같다. 이렇게 문화 측면에서 사람들에게 다가가는 게 매우 중요한 것 같다. 나도 일상 속에서 환경을 위한 작은 실천을 해야겠다고 다짐했다. 오늘도 작은 변화가 모여 큰 변화가 된다는 걸 다시 느끼게 되었다.

나의 실천

이번 마지막 나의 실천에서 사용하지 않는 가전제품의 플러그를 뽑아 대기전력을 차단하는 모습을 닮았다. 작은 습관 하나하나 에너지 절약에 큰 도움이 된다는 걸 알게 되었다. 매일 실천하다 보면, 이제는 환경을 대하는 태도가 자연스러워질 것 같았다. 내가 생각하기에 우리에게는 탄소배출에는 줄이고자 하는 방법 중에 전기 절약이 가장 쉽고 효율적인 방법인 것 같다. 하루에 전기를 절약하는 습관을 들이면 바쁜 지구 인간이 될 것이다. 전기 절약은 탄소배출을 줄이는 첫걸음이라는 사실이 실감났다. 앞으로도 가정에서 실천할 수 있는 친환경 행동을 꾸준히 해 나가야겠다고 느꼈다.

마무리



The band started looking at sustainable, low-carbon solutions.

콜드플레이의 탄소중립 콘서트를 보며 정말 감동받았다. 단순한 공연을 넘어선 지구를 위한 책임 있는 행동이 멋지게 느껴졌다. 재생에너지를 사용하고, 관객의 움직임으로 전기를 만든다는 아이디어가 나에게 매우 참신했다. 이런 노력이 전세계 팬들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줄 거라곤 생각한다. 음악과 환경이 함께할 수 있다는 걸 꼭 보여준 좋은 사례였다. 그들의 진정성 있는 실천이 더 많은 아티스트들에게도 영감을 줄 것 같다.



실천사진...





전수빈 중학교 3학년

2025 년 07 월 14 일 월요일

날씨

지구를 지키자



나는 지구가 행복했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지구가 건강하면 좋겠습니다
나는 지구가 깨끗하면 좋겠습니다
나는 지구를 사랑합니다.

